

[HOME](#) > [뉴스](#) > [자치구공단](#)

마포구공단, 마포농수산물시장 폭염 대응 강화...냉방·쉼터 확충

김혜란 기자 | 승인 2026.08.18 19:00

이동형 냉방기 설치·고객쉼터 2곳 조성...상인·이용객 휴식공간 마련
말복 맞아 상인들에게 팔빙수 260개 전달...건강한 여름나기 응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이용객을 위해 조성된 고객쉼터에 냉·난방기와 휴게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황진택)이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상인과 이용객을 위한 냉방·휴게시설 확충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7월 29일부터 시장 주요 지점에 이동형 냉방기를 설치해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상인과 이용객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구조인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냉방이 필요한 지점에 이동형 냉방기를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시장 내 휴식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공단은 서울시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공실 매장 2곳을 고객쉼터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냉·난방기와 휴게시설 등을 갖춘 쉼터는 고령자와 어린이를 비롯한 시장 이용객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인들을 위한 현장 나눔도 이어졌다. 공단 임대사업부는 말복인 지난 12일 팔빙수 260개를 마련해 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직원들이 시장 곳곳을 찾아 팔빙수를 건네며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요 지점에 이동형 냉방기를 설치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이동형 냉방기 운영과 팔빙수 나눔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고객쉼터 2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장 여건과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상인과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황진택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여름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 시장을 지키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시설 확충과 현장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팔빙수 나눔이 상인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